

보도설명자료 (‘17.10.19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‘탈원전 땀 LNG 물량 확보 비상’ 제하 보도에

대한 설명 (‘17.10.19. 한국경제 A14면)

1. 기사내용

-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‘29년 LNG 수요가 5,843만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, 한국가스공사가 확보한 물량은 4분의 1인 1,394만톤에 불과하며, ‘29년까지 2,378만톤의 LNG가 추가 필요함

○ LNG 발전비중은 ‘16년 22%에서 ‘30년 37%로 증가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설명

-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되더라도 전력수요 증가세 둔화, 신재생 발전 증가 등으로 LNG 발전비중은 크게 늘지않을 전망이고, 이에 따라, LNG 추가수요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
- 구체적인 LNG 비중과 도입규모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전원믹스, 발전설비 계획 등이 확정된 이후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이 마련되어야 산출될 수 있을 것임
- 정부는 지금까지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도입해 왔으며, 금번에 마련되는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음

※ 관련 문의 : 전력산업과 최우석 과장(044-203-5240)
가스산업과 황병소 과장(044-203-5230)